

영농정착금·농가수리비 지원 등 적극 귀농 유치



귀농·귀촌 도시부문에서 7년 연속 수상한 전라북도 고창군은 귀농·귀촌인을 위한 종합교육시설인 체류형 농업지원센터도 열었다. 고창군 관계자는 “농원지 원센터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고소득을 창출할 전진기지”라고 소개했다.

고창군은 깨끗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태계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복분자와 수박, 멜론, 고추, 풍천장어 등 특산물이 많아 영농 정착에 유리하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마음을 가진 주민들과 천혜의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고창은 새로운 꿈을 꾸는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하는데 최적지”라고 말했다. 이재원 기자



귀농·귀촌 지원하는 고창군 청보리밭 풍경.

단양팔경 등 매년 1000만 방문 ‘관광 1번지’



힐링관광도시 부문에서 7년 연속 상을 받은 충청북도 단양군은 매년 1000만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 1번지다. 힐링과 웰빙으로 대표되는 단양군은 중부 내륙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단양 팔경이 유명하다.

단양팔경은 2013년부터 4회 연속 한 국관광공사가 주관한 ‘한국인이 꼭 가 봐야 할 관광지 100선’에 선정돼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팔경 중 하나인 도담삼봉은 ‘빅데이터로 본 국민이 선호하는 여름과 겨울철 관광지’에 이름을 올렸다. 충청북도가 지난해 주요 관



단양군 단양강 전도.

광지 132곳을 분석한 결과 도담삼봉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357만20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개장한 만천하스카이워크는 소문을 타면서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단양강잔도, 수양계 밧 타널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단양군의 먹거리와 볼거리가 소개돼 주말이면 상점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도시 재생에 성공했다.

소백산자연휴양림과 대명리조트, 단양관광호텔 등 대형 숙박시설을 비롯해 펜션과 게스트하우스 등이 곳곳에 분포돼 있어 단양을 찾는 이들의 휴식을 돕고 있다.

김민정 기자

민감성 피부에 맞는 스킨케어 솔루션 개발



보령메디안스 닥터아토(Dr.atto)는 아토피와 같은 민감성 피부에 알맞은 저자극 제품을 만드는 스킨 케어 솔루션 브랜드다. 닥터아토는 피부과 전문 의사가 만든 10가지 피부 민감지수 체크리스트에 체크한 항목 수를 기준으로,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스킨 케어 제품을 제안한다. 사용자는 3라인, 5라인, 7라인 스킨 케어 솔루션 제품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된다.

1~3개를 체크한 경우는 충분한 피부 보습에 조절을 맞춘 3라인, 4~6개를 체크한 경우는 가려움 완화 기능을 위한 기능성 펩타이드와 귀리 단백질 추출물이 함유된 5라인, 7개 이상 체크했다면 과민감성 피부를 가진 경우로 피부 진정 작용을 돕는 애기수염 추출물의 7라인을 선택하면 된다.

닥터아토는 신생아부터



보령메디안스 스킨 케어 브랜드 닥터아토.

사용 가능한 제품 라인업인 ‘제로플러스스’도 갖추고 있다. 제로플러스스는 천연 유효제인 레시틴을 사용해 피부 자극을 최소화했다. 또 태아 보호막 태지와 유사성분인 ‘BM-Simulipids’를 사용해 피부 수분손실을 최소화 했다. 제품 라인업은 로션, 크림, 오일, 워시, 폼팩트 파우더로 이뤄져있다. 특히 닥터아토의 모든 제품에는 유럽연합(EU)이 선정한 26가지 알레르기 유발 의심물질을 배제한 ‘알러젠 프리(Allergen-Free)’향이 적용돼 있다. 심민관 기자

국내 사이버대학 최초 ‘1년 4학기제’ 도입



서울사이버대학(총장 이은주)은 2000년 국내 처음으로 사이버대학 인가를 받았다. 국내 사이버대학 중 최대 규모 캠퍼스(1만6000㎡)를 서울 강북구에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대구·대전·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8개 지역캠퍼스가 있다. 서울사이버대학은 재학생을 위한 다양한 오프라인 특강, 간담회, 운동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실습, 세미나,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취업·창업 관련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다. 대학은 커리어코칭센터 등을 통해 1:1 맞춤형 진로상담,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학은 전공과 관련

한 자격증 취득도 지원하고 있다. 대학은 사이버대학 최초로 ‘학생맞춤 1년 4학기제’를 도입했다. 일반학기(필수)에 방학기간 6주 집중학기(선택)를 더해 학점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학교 관계자는 “조기졸업이 가능해 재학생의 호응을 얻고 있다”며 “지도교수와 담당 조교를 배정해 1:1 밀착 학사관리를 제공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선·후배 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대학은 2018학년도에 성악과, 실용음악과, 창업비즈니스학과, 한국어문화학과를 신설했다. 2019학년도에는 문예창작학과, 전기전자공학과, NGO글로벌개발협력전공, 소프트웨어융합전공 학과를 새로 열었다. 박원익 기자



서울사이버대학교 전경.

태양광발전 1GW로... ‘태양의 도시, 서울’ 육성



서울특별시 친환경 에너지원인 태양광발전을 육성하기 위한 ‘태양의 도시, 서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서울시 전역 생산량 중 태양광발전 비중을 원자력발전 1기 설비용량에 맞먹는 1기가와트(GW·1000메가와트)로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100만 가구와 공공건물·부지에 각각 551메가와트(MW)와 243MW 규모로 태양광발전용 설비를 보급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사업을 추진한 결과, 공공·민간 부문에 보급된 태양광발전의 누계 용량은

216.6MW로 목표치의 21%를 채웠다. 가정용 미니태양광발전 설비가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17만가구(119MW)에 설치될 정도로 시민의 참여가 활발하다. 월드컵공원 별차리광장, 잠실한강공원 솔라로드, 광화문광장 태양광랜드마크 등도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태양의 도시 사업이 마무리되면 서울시 전체 가구 중 9%인 약 31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 54만톤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삼정회계법인이 실시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25년 동안 약 5327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전망이다.

유한빛 기자



서울역사박물관 태양광 설치 전경.

평생학습의 도시... 인문학 마을 26곳으로 늘어



경상북도 칠곡군은 평생학습의 도시이자, 인문학의 도시다. 지난 2004년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된 이후 누구나 평생 학습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 체계를 꾸준히 구축해왔다.

전국 최초 지자체 운영 학점은행제인 칠곡평생학습대학을 만들어 581명의 주민이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읍면 평생학습복지센터, 찾아가는 현장교육, 성인문해교육 등을 통해 칠곡군 어디서나 평생학습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2013년 9개 마을로 시작한 칠곡 인문학 마을 사업은 2019년 현재 26개의 마

으로 성장했다. 칠곡군에 따르면 이웃이 선생님이 되고 할머니들이 배우가 되고 시인도 되면서 주민 스스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연구하고 배우는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6년간 함께한 1기 마을은 지속적으로 마을살이 운영이 가능한 범위까지 성장했다. 선배 마을로서 후배 마을에 마을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인문학 마을 네트워크가 견고해지고 있다. 백선기 군수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평생학습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평생학습도시, 인문학 도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칠곡군의 이번 수상은 7년 연속 수상이다. 우고운 기자



칠곡군 인문학 마을 축제 모습.

100세 시대 대비 치매안심센터·노인대학 운영



전남 영암군은 ‘하나 된 군민 품으로 복지영양’ 건설이라는 군정 목표 아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영암군은 복지시책을 확대 보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복지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주민 만족도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영암군은 고령화되는 농촌사회 특성을 고려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노인대학과 왕인문화학교도 운영 중이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100원 택시와 1000원 버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민관 협력사업의 하나로 영암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구성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사업인 ‘우리마을에 드림봉사단이 됐다’ 프로그램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남 우수 자원봉사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마을 주민을 위한 공간인 마을회관은 무더위 쉼터 역할은 물론 마을 공동체 안 해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영암군은 마을회관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마을회관에 부식비를 지급해 마을회관을 주민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이진혁 기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한 영암군청 관계자들.

국내 첫 짬뽕국물 특허... 전국에 140여 가맹점



이비가푸드에 이비가짬뽕은 전국에 약 140여개 가맹점을 두고 있다. 이비가는 ‘이비가’를 소리가 나는 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맛있는 음식에 자꾸 입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우수프랜차이즈 지정에서 1등급을 3회 연속 받으면서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다.

이비가짬뽕은 사골·토종닭·한약재를 넣고 푹 고아 만든 육수로 국내 최초 짬뽕국물 제조 특허를 받았다. 육수는 천연효모를 사용해 맛을 더했다. 알칼리수로 반죽하고 숙성시킨 생면은 찰지면서 보드라운 면발로 소화기 잘 되도록 도와준다. 숙취 해소 기능을 강화해 먹으면 속이 편안하도록

발한 이비가면은 이른바 ‘속편한 짬뽕’으로 소비자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본사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보유한 전문 생산공장의 전용 생산라인과 자체 물류시스템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한다. 이비가푸드는 초보 사장들을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이비가푸드 관계자는 “소비자 사랑으로 성장한 만큼 맛과 품질로 보답하겠다”며 “가맹점·소비자와 상생하겠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이비가푸드 대표 메뉴 이비가짬뽕.

일회용품은 줄이고 커피찌꺼기 재활용은 늘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친환경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스타벅스는 작년 7월부터 일회용품 줄이기 대책을 포함한 친환경 캠페인 ‘그리너(Greener) 스타벅스 코리아’를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제품·사람·매장 3가지 분야에서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부터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리드(컵뚜껑)를 전국 매장에 도입했다. 그 결과 스타벅스의 일회용 빨대 사용량은 월평균 약 1500만개에서 리드 도입 이후 월평균 약 750만개로 50%가량 줄었다. 스타벅스는 향후 빨대 사용량을 7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97% 수준이었던 커피 찌꺼기 재활용률도 오는 2020년까

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연말까지 공기 청정 시스템을 전국 매장에 설치해 실내공기 질도 관리한다. LED 조명과 친환경 목재 등 친환경 마감재 활용을 확대해 에너지 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매장 환경 구현도 지속해서 해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스타벅스는 전자영수증을 400만명의 ‘마이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전원에게 발급하고 있으며, 개인 컵 사용 고객 대상 혜택을 높이는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재은 기자



친환경 캠페인 펼치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